

러시아인들은 전쟁을 원하는가?

РСФСР

마크 베르네스의 원곡

알렉산드로프 앙상블 버전

"우리는 싸울 줄 안다. 그러나 원치 않는다. 또다시 병사들 피가 이땅에 흐르는 것을!"

1961년 발표된 소련의 반전 노래. 소련의 시인 예브게니 옌투셴코의 시에 에두아르드 콜마노프스키가 작곡한 선율을 덧댄 곡으로 가수는 소련의 가수 겸 배우인 마크 베르네스. 그 유명한 '백학'을 부른 사람임. 물론 베르네스 말고 다른 가수들도 많이 불렀고. 이 노래는 세계 평화 평의회, 세계청년학생축전 등 여러 국제 행사에서 불리며 유명세를 얻었다고 함.

아무래도 소련에서 나온 반전노래라 소련을 악마화하는 프로파간다 작업에 열을 올리던 서방에서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지 이 곡에 관련된 한 일화도 있음. 1967년 알렉산드로프 앙상블의 서유럽 순회 공연 중 런던에서 공연할 때 이 노래가 공산주의 프로파간다라며 지역 당국에서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.. 그런데 알렉산드로프 앙상블 측은 강 씹고 그대로 불렀다더라.

근데 '소련인'이라고 안하고 '러시아인'이라고 한 이유는 모르겠다. 반전노래라는 곡의 성격 때문에 정치색을 빼려고 그랬거나, 러시아 민족주의를 강조하던 대조국전쟁시기의 영향을 받은 걸 수도. 어차피 당대 서방에서도 소련=러시아라고 여겼으니 크게 상관은 없었던듯.

참고로 북한에서 이 노래를 한국어(조선어)로 번역하기도 했음. '러시아인은 전쟁이 그리도 좋소?'라는 제목으로. 북한판 소련노래가 다 그렇듯 이것도 멀쩡히 번역해놔서 주체사상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지. 보안법이 두려우므로 링크는 올리지 않을테니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각자 찾아보시오. 한국어 가사가 궁금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북한판 찾아보시고.

